

제1차

제20대 대통령선거(2022.03.09)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1
II. 주요 조사 항목	2
III. 가중값 배율	3
IV. 표본의 특성	4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7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7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8
3. 지지 후보 선택 관련	9
4. 투표 효능감	9
5. 코로나19와 선거참여	10
6. 선거 공명도 평가	10
7.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11
8.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11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2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12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13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14
4.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15
5. 투표효능감	16
6. 코로나19와 선거참여	17



CONTENTS

7.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정성 평가 / 공정성 부정 평가 이유	18
8.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20
9.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21
10. 선관위 활동 평가	22
11.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23

PART 1

조사 개요



제 1 장 |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1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89.7%) + 유선전화 RDD(10.3%)

응답률 ▶ 20.0%(무선전화 20.5%, 유선전화 16.1%)

조사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8일(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의향
- ▶ 투표 미참여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이유
- ▶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 ▶ 코로나19와 선거 참여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선거과정 공명성 평가
- ▶ 공명성 부정평가 이유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 선거범죄 관련 제도 인지도
 - 포상금/과태료 제도 인지 여부
 - 포상금 제도의 신고·제보 영향력
 - 선거범죄 신고·제보 의향
- ▶ 후보자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 ▶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인지 여부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역점 과제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가중값 적용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510	100.0	1,510	100.0	1.00
성별	남자	756	50.1	749	49.6	0.99
	여자	754	49.9	761	50.4	1.01
연령별	18~29세	259	17.2	261	17.3	1.01
	30대	232	15.4	230	15.2	0.99
	40대	284	18.8	279	18.5	0.98
	50대	299	19.8	294	19.5	0.98
	60대	261	17.3	246	16.3	0.94
	70세 이상	175	11.6	200	13.3	1.14
지역별	서울	283	18.7	283	18.8	1.00
	인천/경기	477	31.6	477	31.6	1.00
	대전/세종/충청	156	10.3	160	10.6	1.03
	광주/전라	153	10.1	148	9.8	0.97
	대구/경북	144	9.5	148	9.8	1.03
	부산/울산/경남	230	15.2	228	15.1	0.99
	강원/제주	67	4.4	65	4.3	0.97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510	100.0
성별	남자	749	49.6
	여자	761	50.4
연령별	18~29세	261	17.3
	30대	230	15.2
	40대	279	18.5
	50대	294	19.5
	60대	246	16.3
	70세 이상	200	13.3
권역별	서울	283	18.8
	인천/경기	477	31.6
	대전/세종/충청	160	10.6
	광주/전라	148	9.8
	대구/경북	148	9.8
	부산/울산/경남	228	15.1
	강원/제주	65	4.3
직업별	화이트칼라	547	36.2
	블루칼라	156	10.3
	자영업	247	16.4
	농임어업	33	2.2
	가정주부	273	18.1
	학생	110	7.3
	무직/기타/무응답	144	9.6
학력별	중졸 이하	136	9.0
	고졸	424	28.1
	대재 이상	935	61.9
	모름/무응답	15	1.0
소득별	200만원 이하	276	18.3
	201-400만원 이하	367	24.3
	401-700만원 이하	385	25.5
	701만원 이상	302	20.0
	모름/무응답	181	12.0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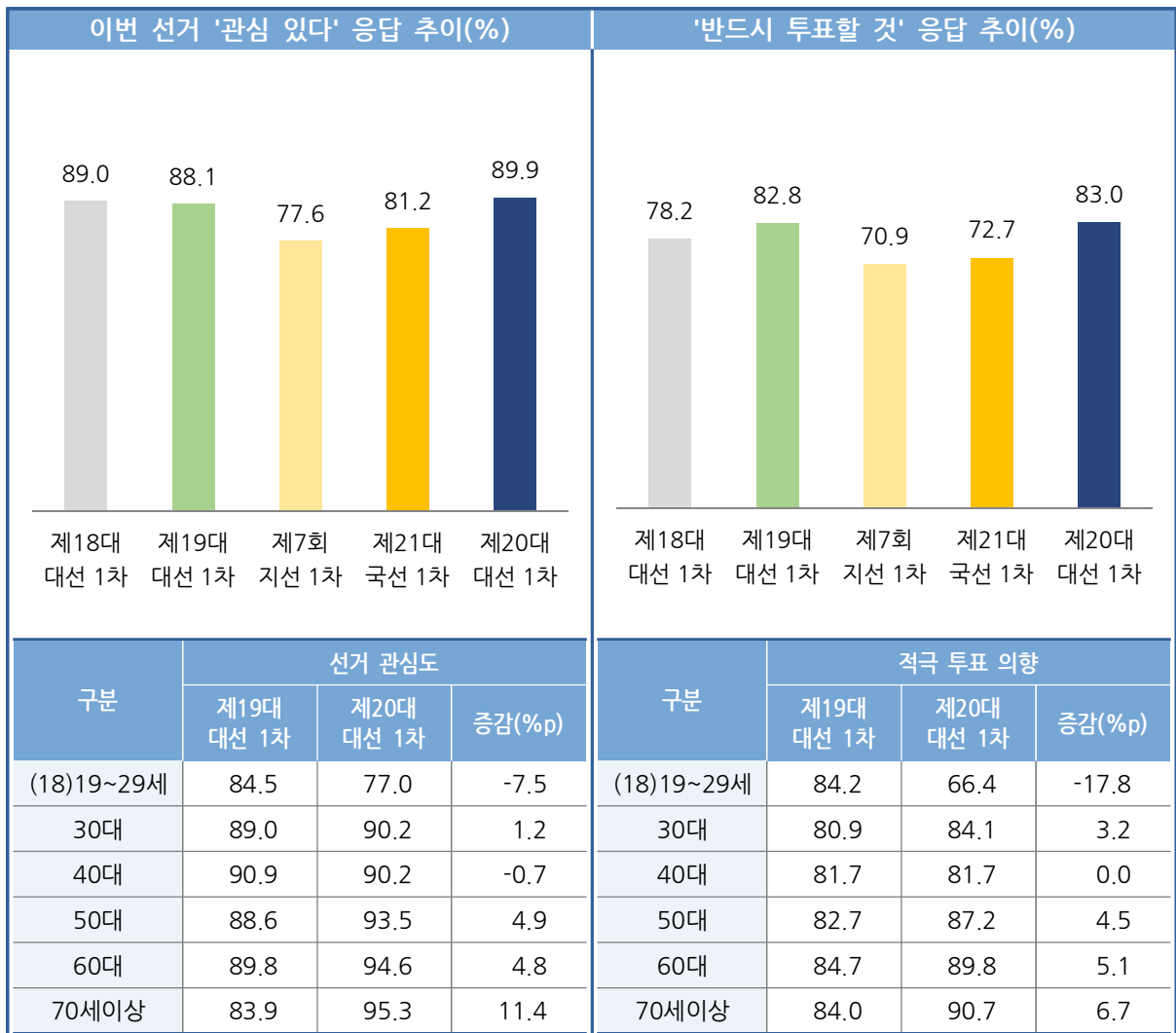


제 2 장 |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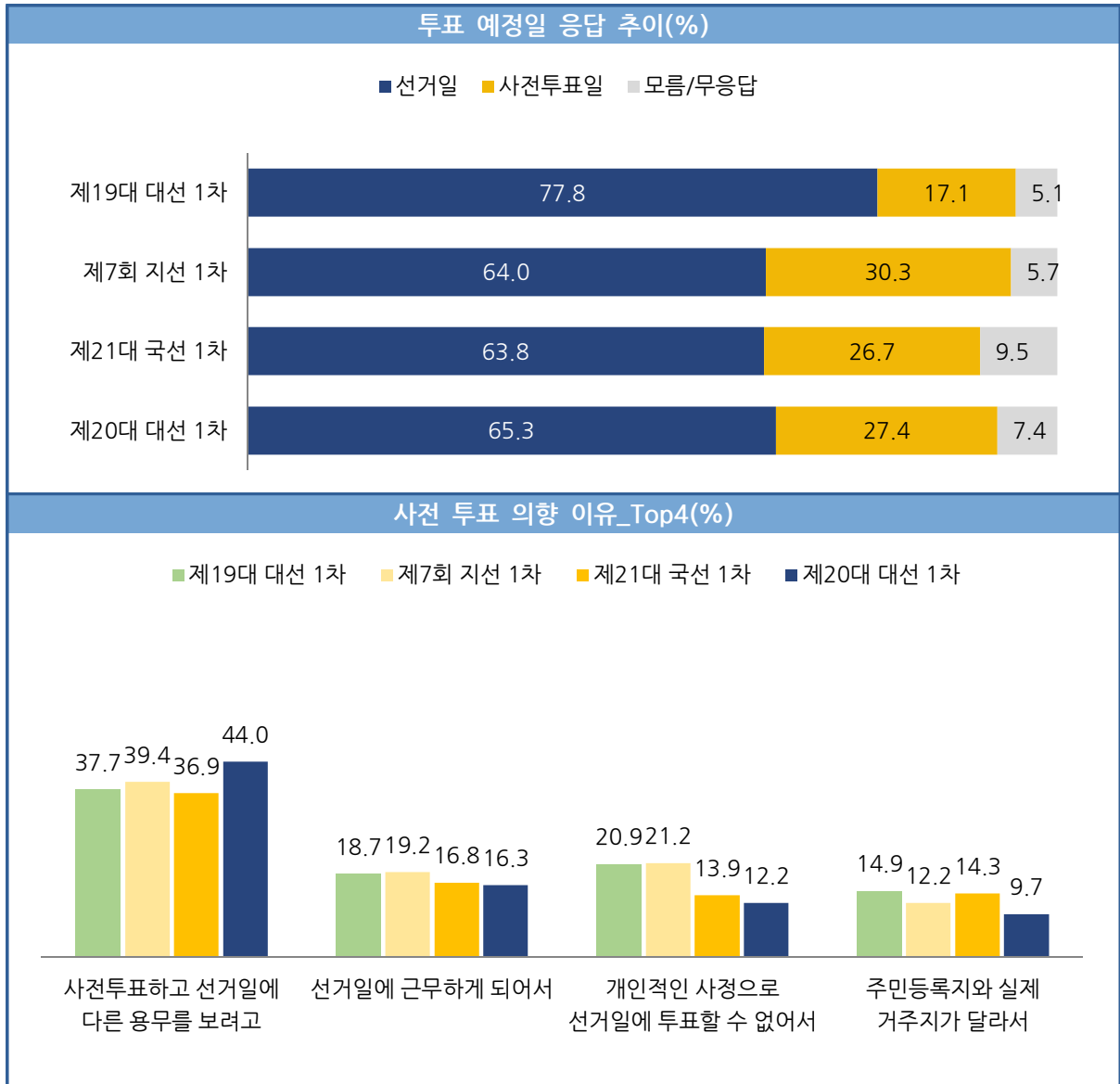
- ▶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 있다' 89.9%, '반드시 투표할 것' 83.0%
 - 19대 대선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18~29세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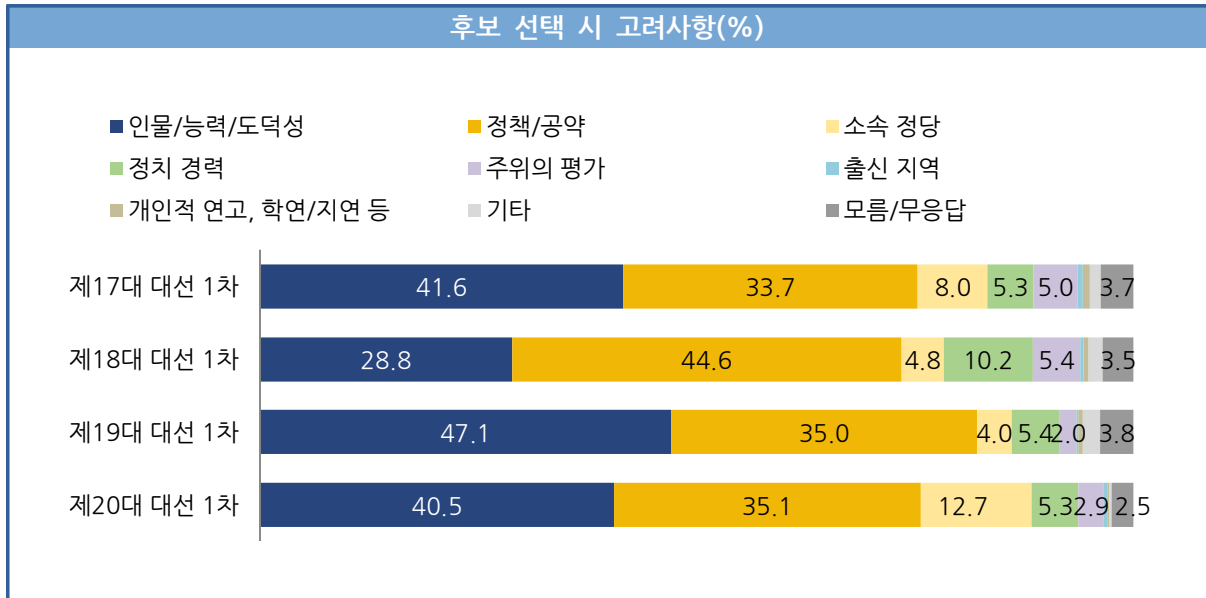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 선거일 투표 65.3%, 사전 투표 27.4%
 - 사전 투표 의향 19대 대선 대비 10.3%p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30~40대(각각 35.8%, 36.0%)가 50~60대(25% 내외)보다 높음
-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4.0%)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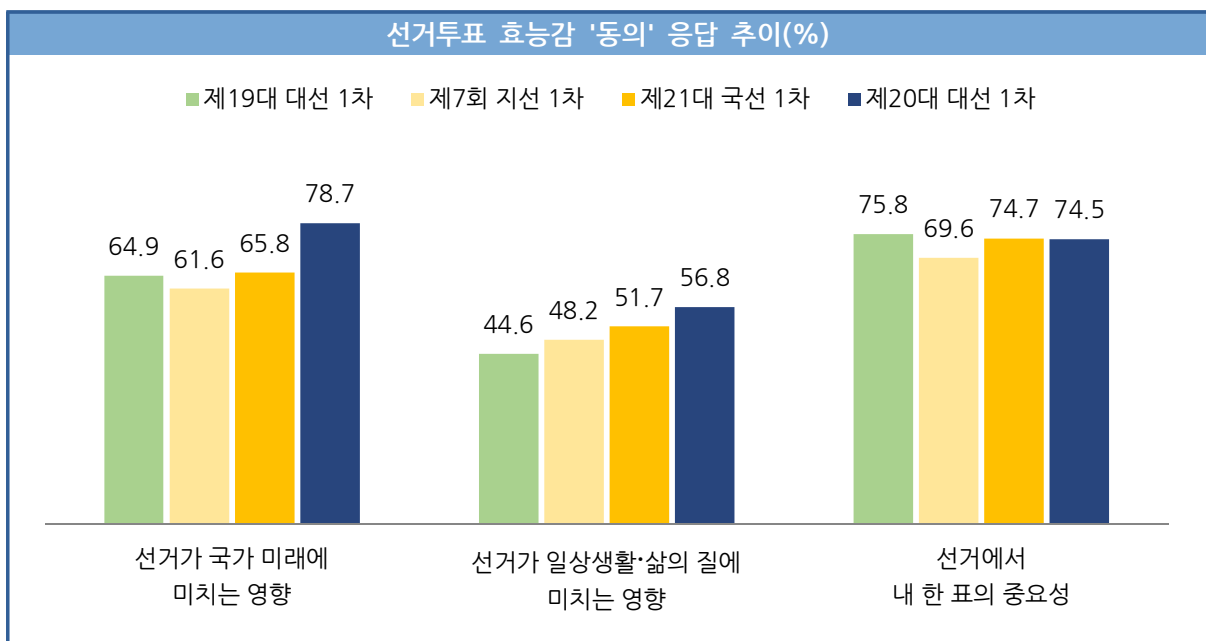
3. 지지 후보 선택 관련

- ▶ 지지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40.5%)과 '정책·공약'(35.1%)이 가장 중요
 - '인물·능력·도덕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9대 대선 대비 감소
 - 30대 이하는 '정책·공약', 40대 이상은 '인물·능력·도덕성'과 '소속 정당' 고려 많아



4. 투표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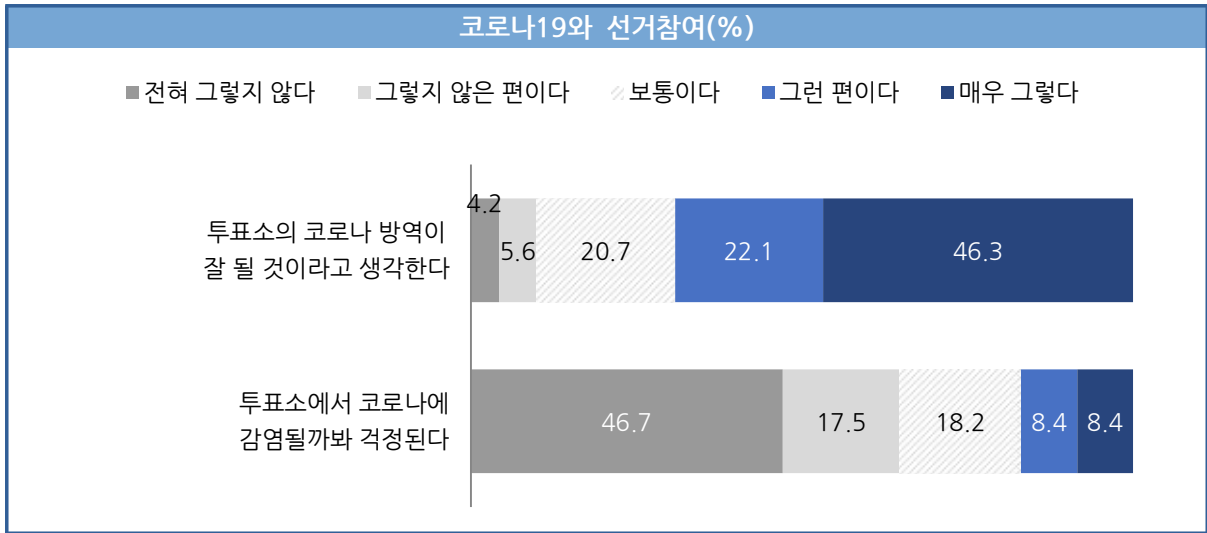
-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7%),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4.5%),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7%)과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6.8%)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이전 선거 대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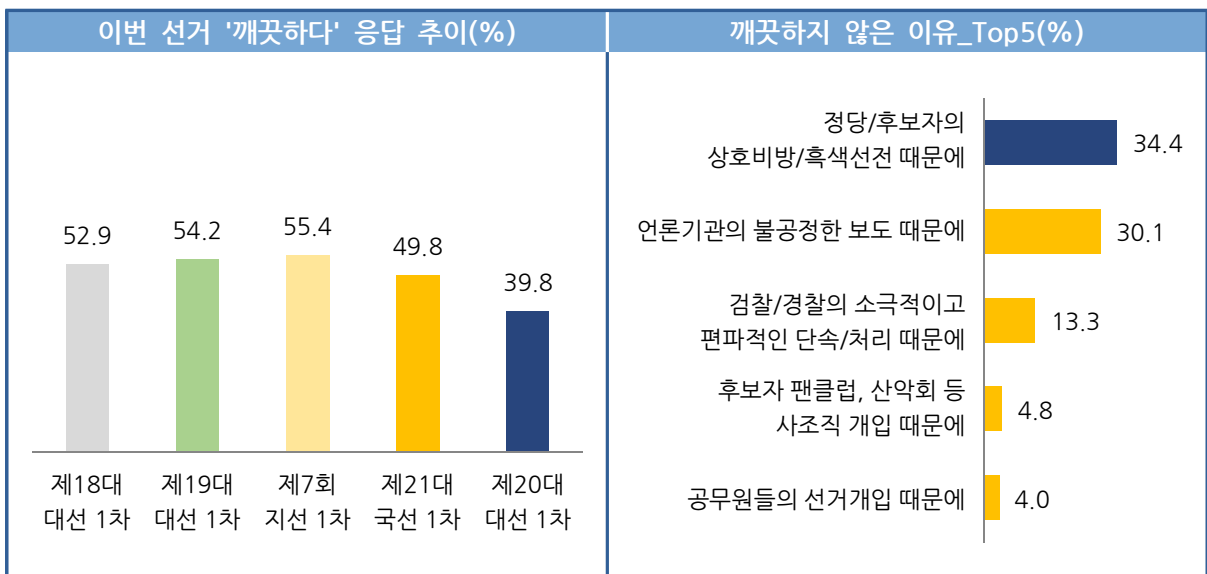
5. 코로나19와 선거참여

- ▶ 코로나19와 선거참여에 대한 생각은 '투표소의 코로나 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8.4%, '투표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나타나 6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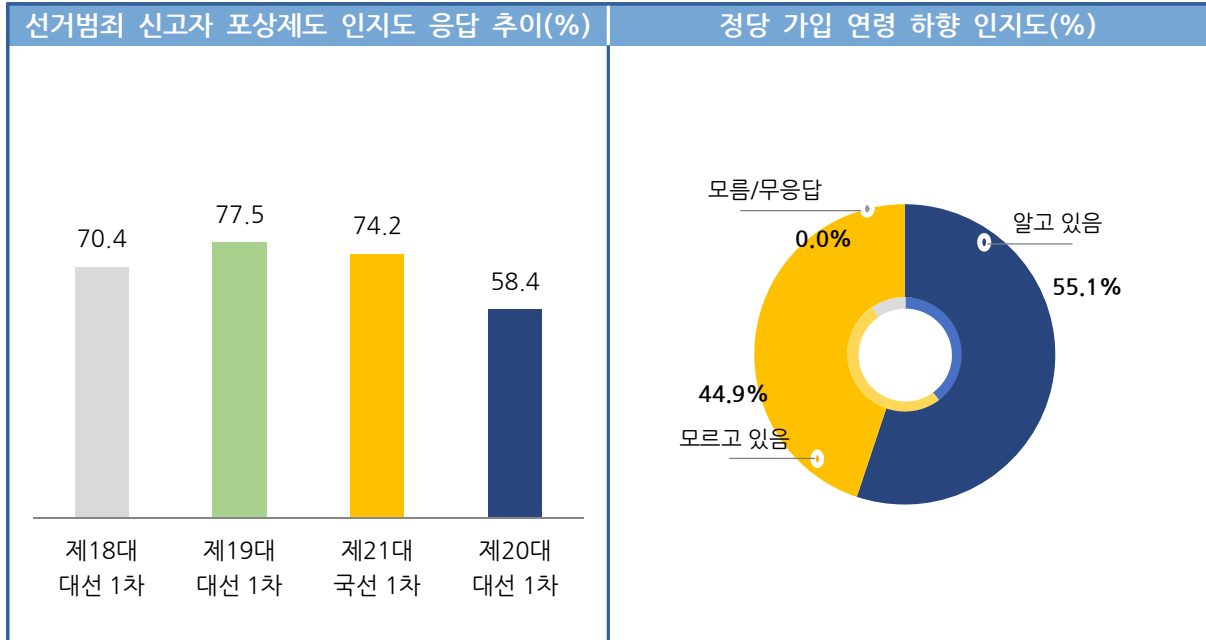
6. 선거 공명도 평가

- ▶ 20대 대통령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39.8%,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50.5%
 - 7회 지선 이후 감소하다가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30%대의 낮은 평가를 받음
 - 30대 이하의 긍정 평가 상대적으로 높음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4.4%), '불공정 보도'(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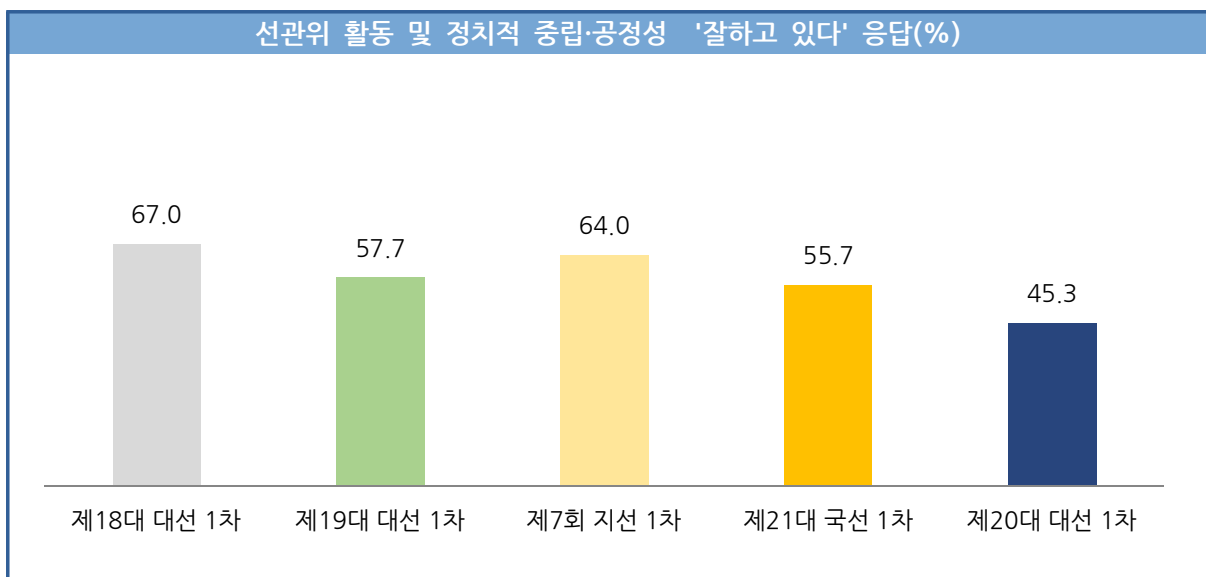
7.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인지도(58.4%)는 이전 선거 대비 크게 하락
- ▶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을 '알고 있다' 55.1%



8.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 ▶ 선관위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45.3%로 이전 대통령 선거 대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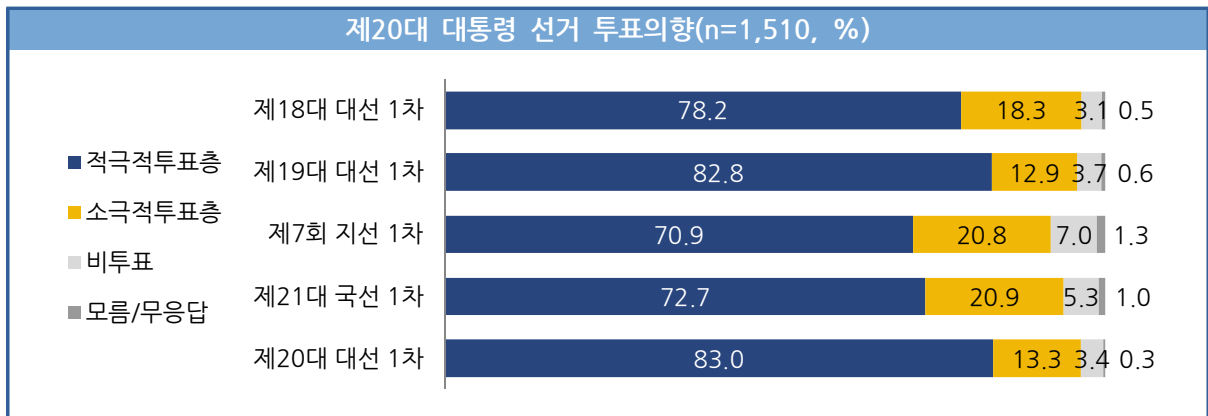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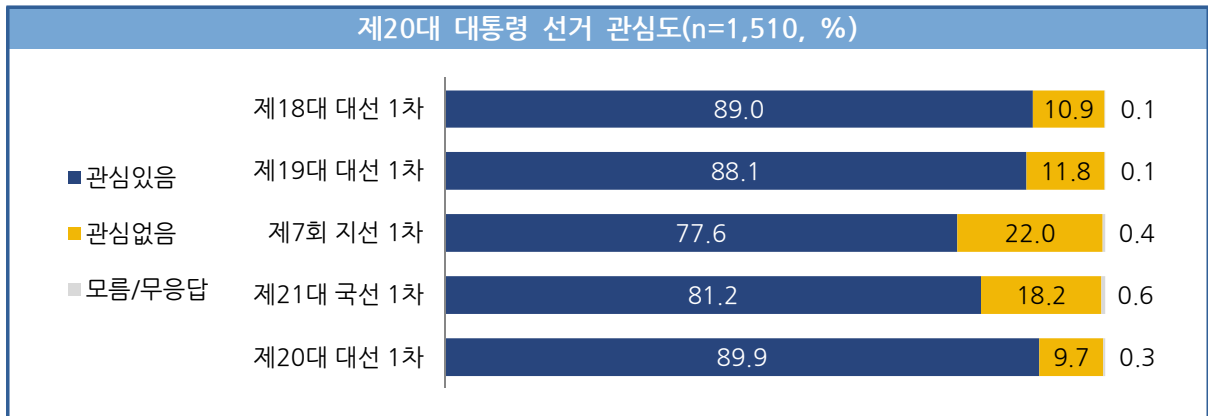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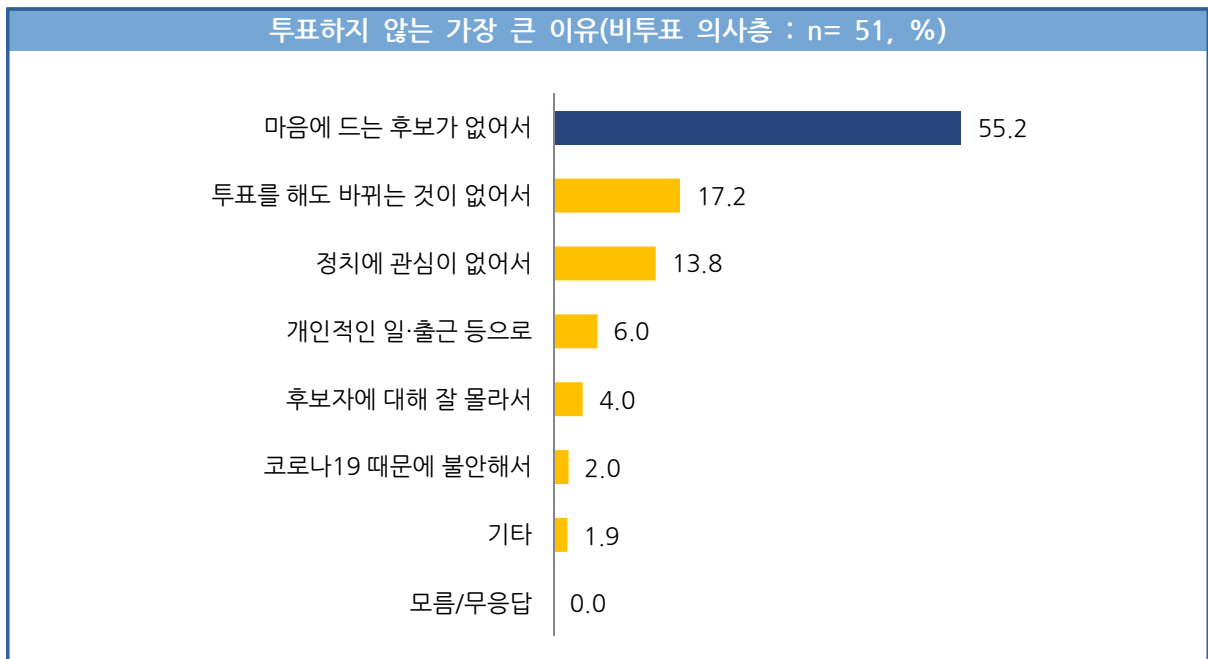
- ▶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 있다’ 89.9%, ‘반드시 투표할 것’ 83.0%
 - 19대 대선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18~29세는 선거 관심도와 적극 투표 의향이 낮아짐
 -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다’ 60.9%, ‘약간 관심 있다’ 29.0% 등 유권자의 89.9%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83.0%로 조사됨. 관심도와 투표 의향 모두 직전 국선 및 지선, 대통령 선거보다 높아짐
 - 18~29세 이하 연령층의 관심도와 투표의향이 직전 국선/지선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 세대 대비 관심도 및 투표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구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18대 대선 1차	제19대 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18대 대선 1차	제19대 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전체	89.0	88.1	77.6	81.2	89.9	78.2	82.8	70.9	72.7	83.0
(18)19~29세	84.5	84.5	65.7	64.3	77.0	65.7	84.2	54.3	52.8	66.4
30대	88.1	89.0	78.5	83.3	90.2	71.1	80.9	75.7	71.3	84.1
40대	87.3	90.9	83.0	87.6	90.2	75.4	81.7	71.0	77.0	81.7
50대	90.0	88.6	78.6	82.7	93.5	85.3	82.7	72.7	73.8	87.2
60대	94.6	89.8	81.0	88.1	94.6	92.3	84.7	75.6	83.8	89.8
70세이상		83.9	78.7	82.9	95.3		84.0	80.0	82.5	90.7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55.2%로 가장 높았으며, 19대 대선 대비 약 2배 높아짐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7.2%로 제19대 대선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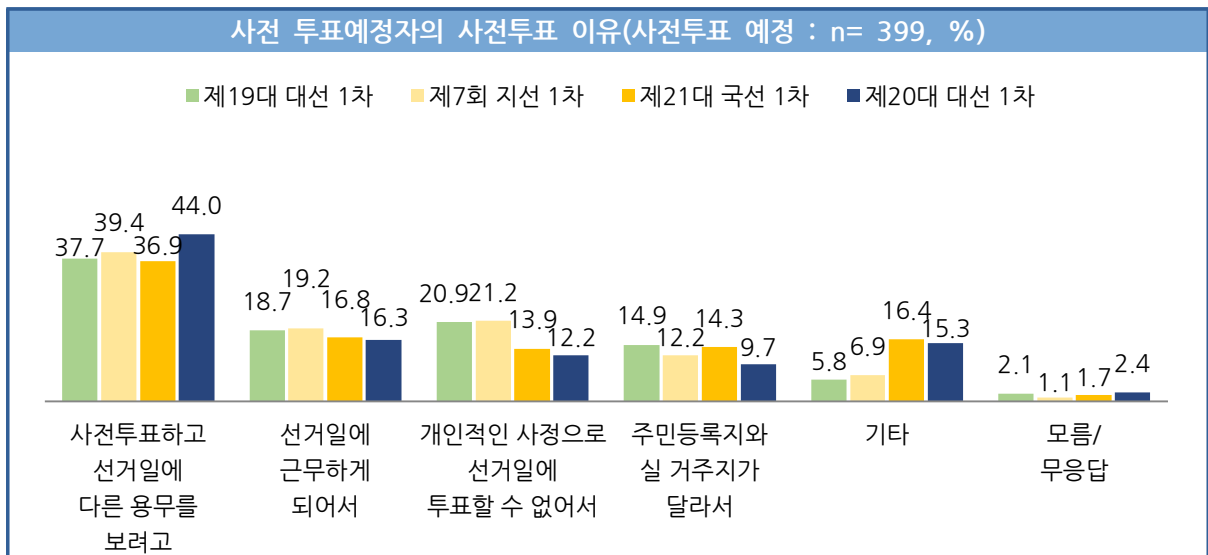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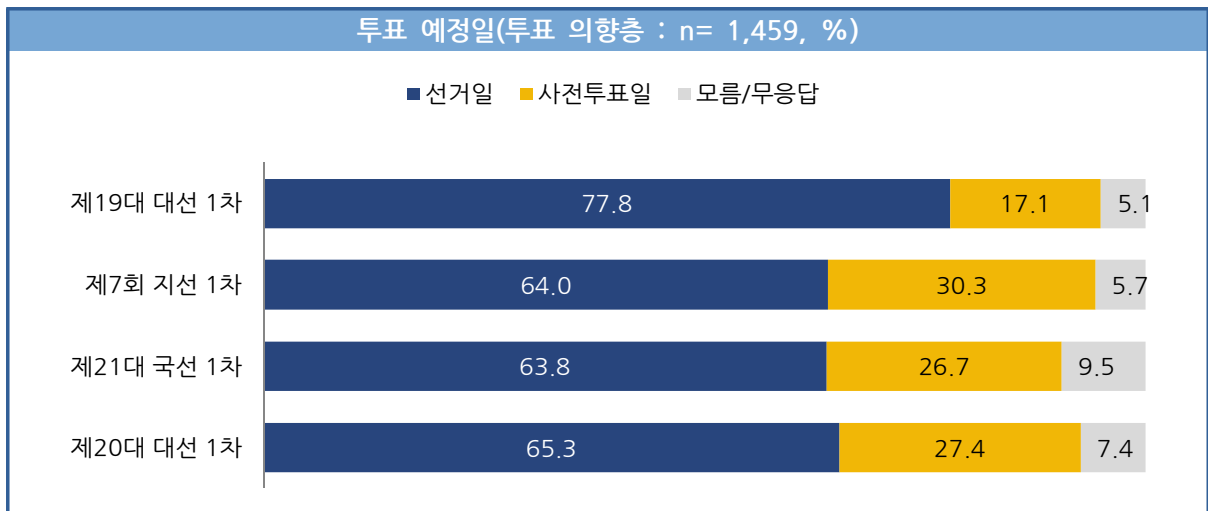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18대 대선 1차	제19대 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n=47)	(n=55)	(n=105)	(n=80)	(n=51)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12.9	28.4	13.6	9.6	55.2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9.8	40.4	34.8	33.9	17.2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6.7	15.5	18.8	20.0	13.8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1.8	12.4	9.5	1.1	6.0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1.7	21.7	16.9	4.0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	14.4	2.0
기타	8.7	1.6	0.8	2.3	1.9
모름/무응답	-	-	0.8	1.7	0.0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사전 투표 의향 27.4%로 19대 대선 대비 10.3%p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30~40대(각각 35.8%, 36.0%)에서 높음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4.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19대 대선부터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의향자(N=1,459)의 65.3%는 '3월 9일'에 투표하겠다, 27.4%는 '3월 4일 또는 5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대 및 40대에서 각각 35.8%, 36.0%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32.4%)가 여자(22.6%)보다 사전투표일 투표의향이 높음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19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의향(17.1%)보다 10.3%p 높아짐.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1%로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았음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4.0%로 19대 대선(37.7%)에 이어 가장 많이 응답됨. 그 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16.3%),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12.2%)는 모두 지난 대선 당시(각 20% 내외)보다 응답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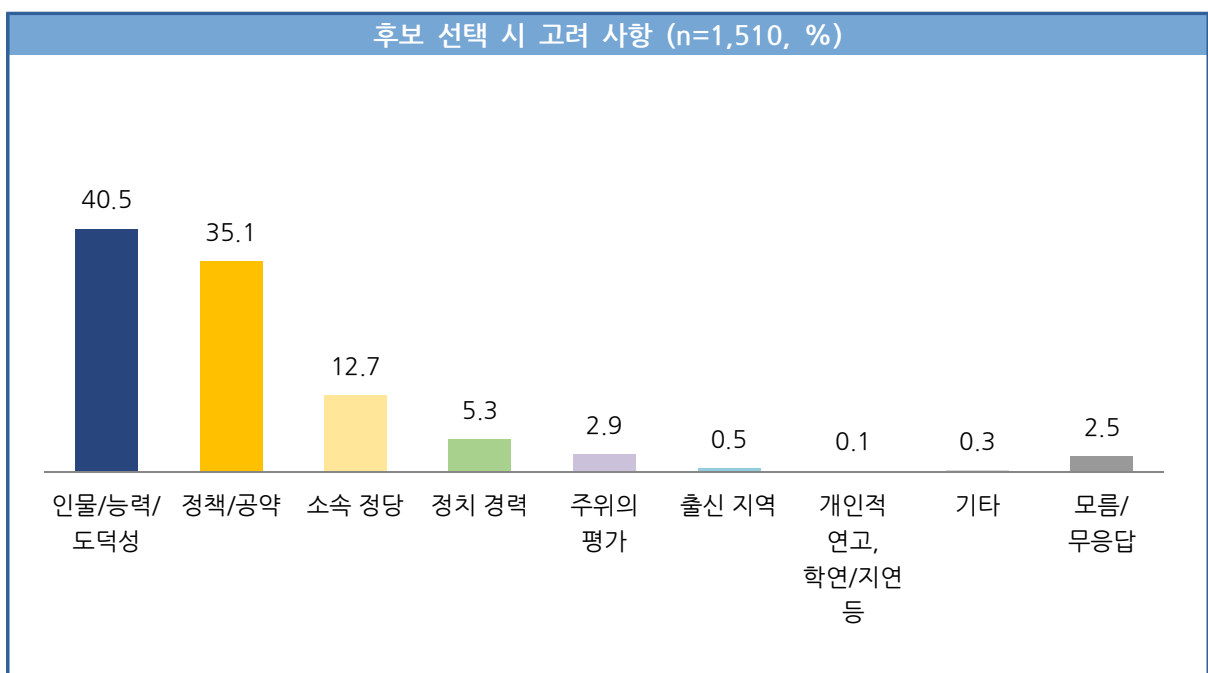
4.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지 투표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40.5%), ‘정책·공약’(35.1%)이 가장 중요

-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인물·능력·도덕성’ 고려는 낮아진 반면, ‘소속 정당’ 고려는 증가함(19대 4.0% → 20대 12.7%).

- 30대 이하는 ‘정책·공약’, 40대 이상은 ‘인물·능력·도덕성’과 ‘소속 정당’ 고려 많아

· ‘정책·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8~29세의 51.6%, 30대의 49.2%가 타 요인보다 높게 고려함.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정책·공약’보다 ‘인물·능력·도덕성’과 ‘소속 정당’ 요인 고려가 많아 세대별 후보 선택 영향 요인의 차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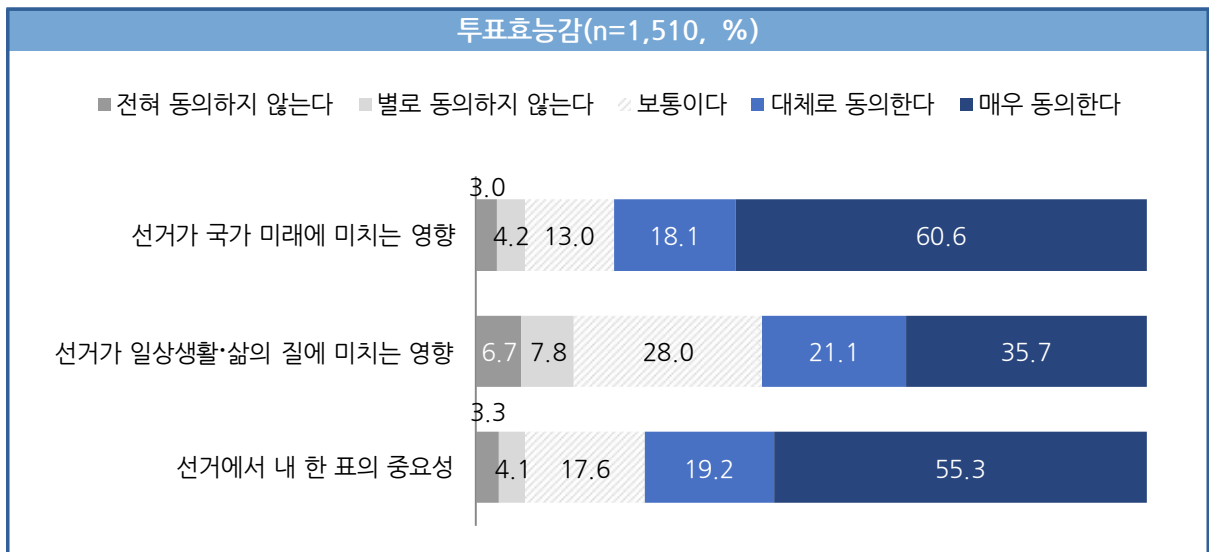


후보 선택 기준(%)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정치 경력	주위의 평가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기타	모름/무응답
제17대 대선 1차	41.6	33.7	8.0	5.3	5.0	0.6	0.8	1.3	3.7
제18대 대선 1차	28.8	44.6	4.8	10.2	5.4	0.4	0.6	1.6	3.5
제19대 대선 1차	47.1	35.0	4.0	5.4	2.0	0.2	0.5	2.0	3.8
제20대 대선 1차	40.5	35.1	12.7	5.3	2.9	0.5	0.1	0.3	2.5



5. 투표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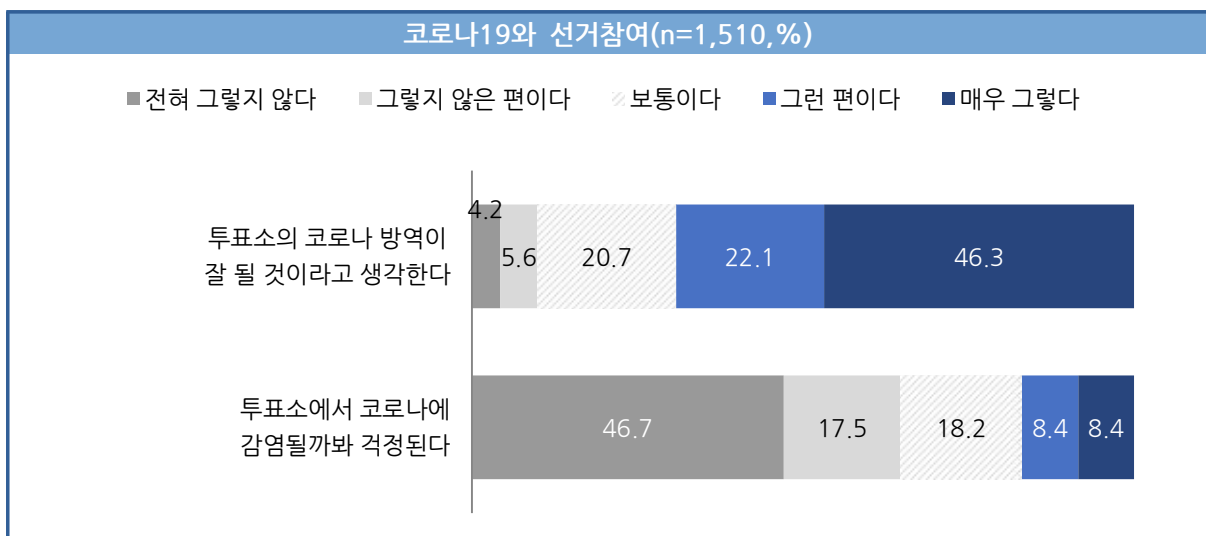
-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7%),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4.5%),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7%)과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6.8%)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이전 선거 대비 증가
- 세 개 질문으로 알아본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78.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의율은 19대 대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동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은 직전 대선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60대 81.4%, 70세 이상 85.9%),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0대 83.0%, 70세 이상 82.5%)과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60대 58.1%, 70세 이상 64.1%) 모두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18~29세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타 세대 대비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투표) 교육·홍보에 관심이 요구됨



투표 효능감 '동의' (%)	제19대 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증감(%p)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64.9	61.6	65.8	78.7	12.9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4.6	48.2	51.7	56.8	5.1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5.8	69.6	74.7	74.5	-0.2

6. 코로나19와 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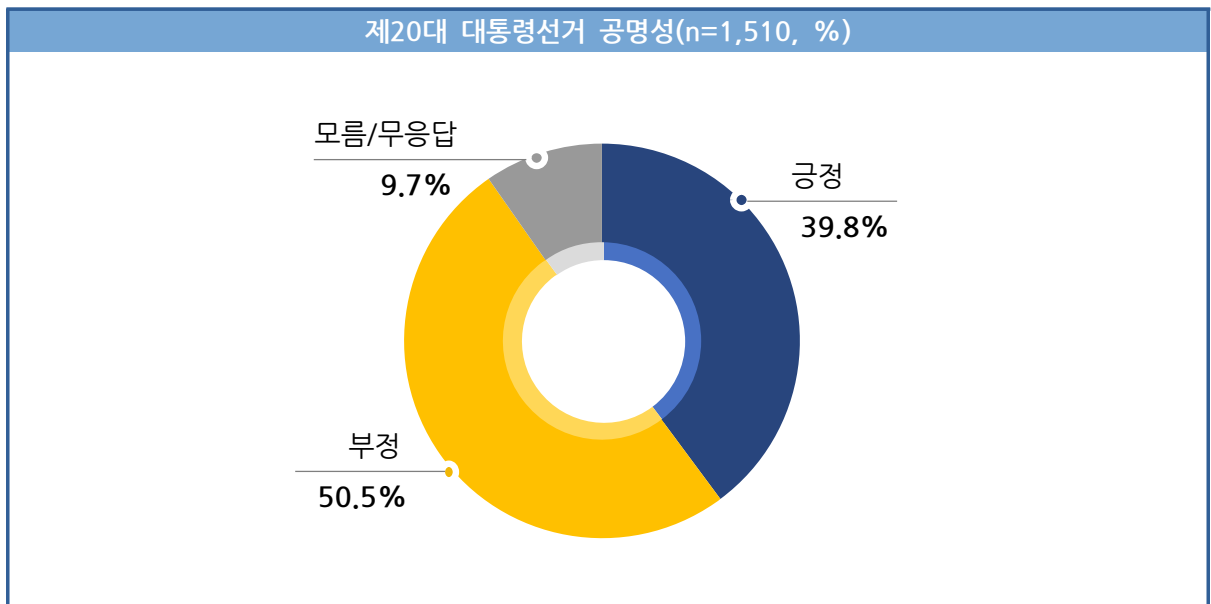
- ▶ 코로나19와 선거참여에 대한 생각은 ‘투표소의 코로나 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8.4%, ‘투표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나타나 6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0대 이상에서 ‘투표소의 코로나 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긍정 응답이 70% 이상, ‘투표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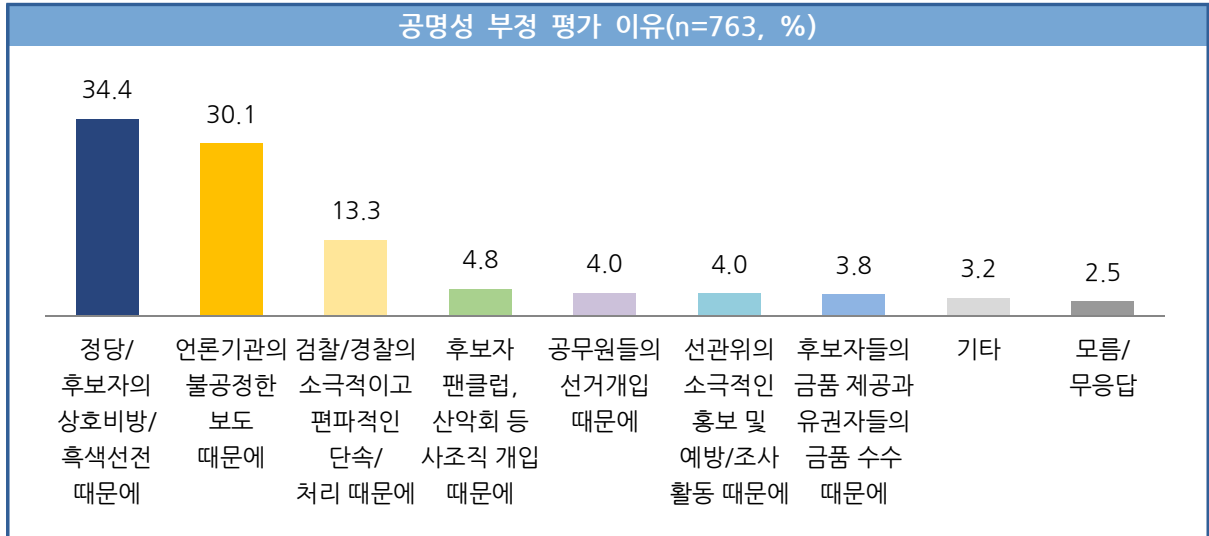




7.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 ▶ 20대 대통령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39.8%, ‘깨끗하지 못하다’ 50.5%
- 공명성 평가, 7회 지선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30%대의 낮은 평가를 받음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4.4%), ‘불공정 보도’(30.1%),
- 지난 대선 대비 ‘검·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은 증가
-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않게 치러지는 편이다’ 33.6%, ‘전혀 깨끗하지 않게 치러지고 있다’ 16.9% 등 유권자의 절반 정도(50.5%)가 공명성에 대해 부정평가를 긍정평가(39.8%)보다 10.8%p 더 많음. 공명성 긍정평가는 직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선의 50%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공명성 긍정평가는 30대 이하에서 45% 내외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40대 38.9%, 50대 35.4%, 60대 36.0%, 70세 이상 38.3%로 고연령층에서는 모두 30%대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N=763)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4.4%)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30.1%)에 응답 집중됨. 19대 대선과 비교해 ‘검·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 응답은 5.6%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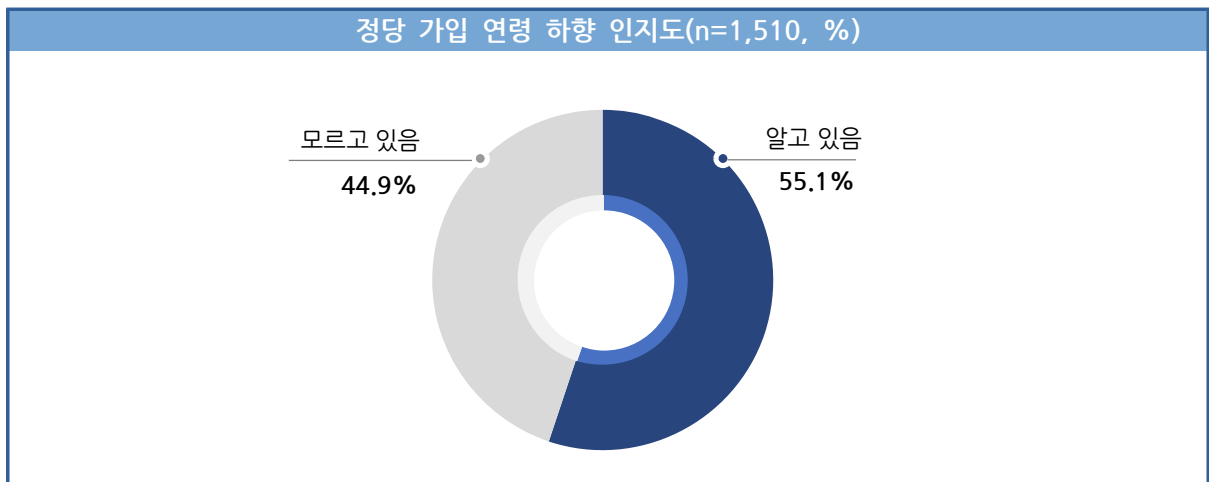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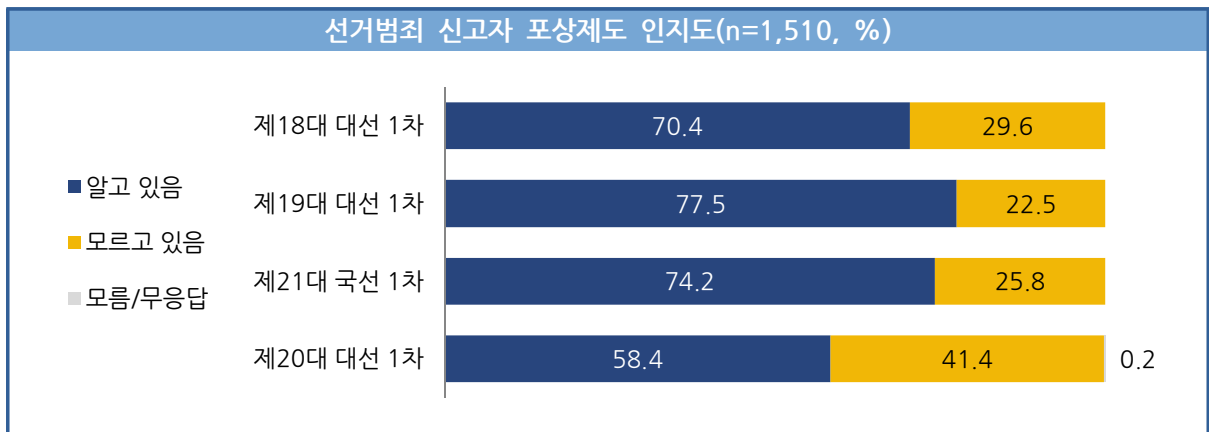
공명성 평가(%)	선거 공명성		공명하지 않은 이유_Top 3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검·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
제18대 대선 1차	52.9	35.4	40.7	15.0	1.7
제19대 대선 1차	54.2	34.9	39.3	31.5	7.6
제7회 지선 1차	55.4	26.8	37.8	20.4	11.2
제21대 국선 1차	49.8	32.3	27.2	29.0	10.9
제20대 대선 1차	39.8	50.5	34.4	30.1	13.3



8.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인지도(58.4%)는 크게 하락
- ▶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알고 있다' 55.1%

- 18~29세의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인지도 타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인지도는 58.4%로 지난 대선 당시(77.5%)보다 크게 낮아짐.
- 정당 가입 연령이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어진 것에 대한 인지도는 55.1%였으며, 50대 이상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36.8%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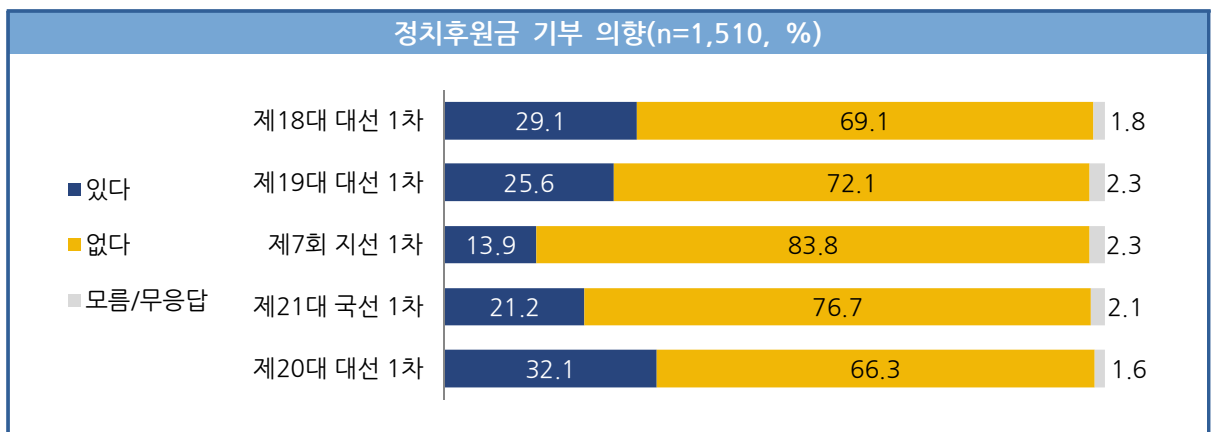


9.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32.1%, 19대 대선 대비 6.5%p 상승

- 18~29세의 기부 의향(13.1%)이 상대적으로 낮음

- 후원회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32.1%, '없다' 66.3%로 18대 대선 이후 기부 의향자가 처음으로 30%가 넘게 나타남
- 특히, 40/50대의 기부 의향이 40% 이상으로 높았으며, 앞서 각종 선거 제도 인지도 및 선거 관심도, 투표 참여 의향 낮았던 18~29세는 기부 의향 또한 13.1%로 각 세대 중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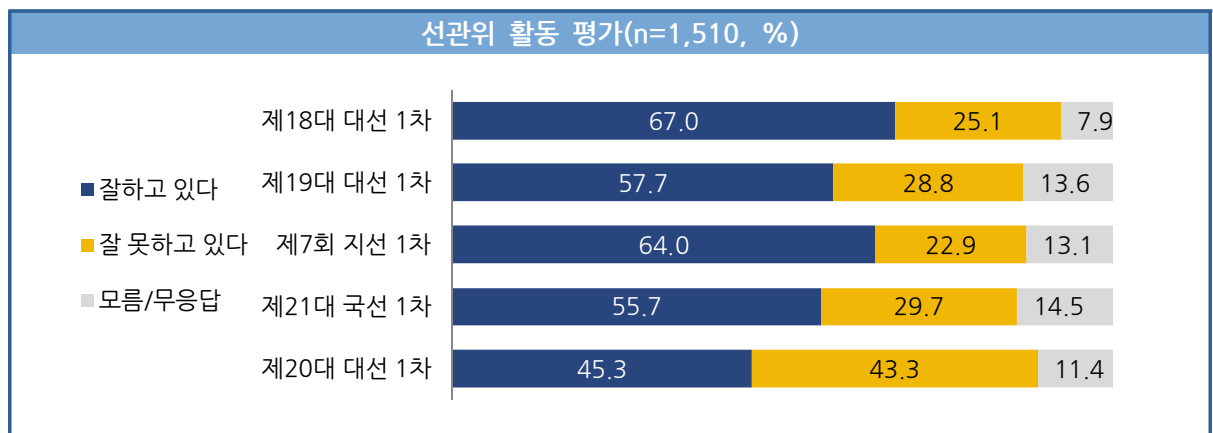


10. 선관위 활동 평가

▶ 선관위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 45.3%

-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긍정평가 12.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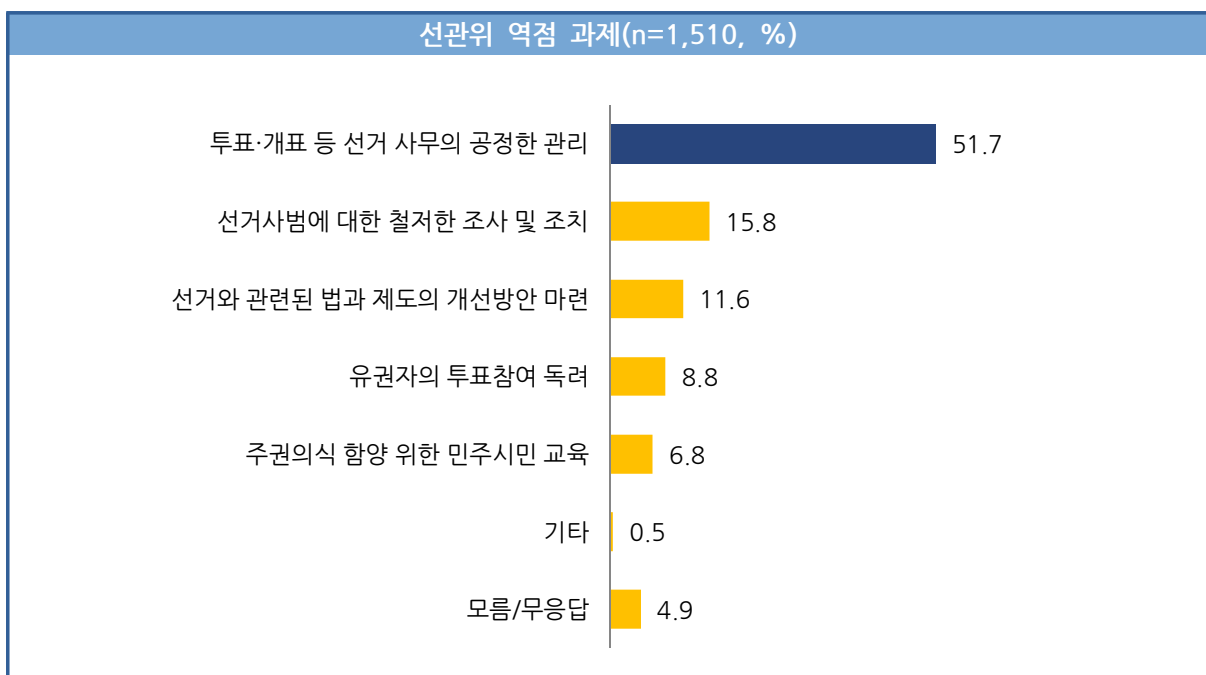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4.9%, ‘잘하고 있는 편이다’ 40.4% 등 긍정평가가 45.3%로 부정평가(43.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선관위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전 대통령 선거 때보다 줄었으며 18대 대선 이후 꾸준히 감소함(18대 대선 67.0% → 19대 대선 57.7% → 20대 대선 45.3%). 긍정평가는 고연령층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60대 32.7%, 70세 이상 36.0%)



선관위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45.3	43.3	11.4
선거 관심 있는 층	46.4	43.5	10.1
선거 관심 없는 층	36.3	42.3	21.4

11.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 선관위 역점 과제로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51.7%)라는 응답 가장 높음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1순위로 꼽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15.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1.6%,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8.8% 순의 응답을 보임.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19대 대선 시부터 계속하여 1순위로 응답됨. 반면 19대 대선 대비 '선거 사범 조사/조치'와 '투표 참여 독려'는 응답 감소함



선관위 역점 과제(%)	제18대 대선 1차	제19대 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12.3	42.4	34.2	40.4	51.7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주1)}	23.5	18.1	25.3	21.1	15.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3.1	12.0	12.9	14.5	11.6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주2)}	35.6	10.2	13.0	10.9	8.8
주권의식 함양 위한 민주시민 교육	-	-	10.0	7.4	6.8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11.5	-	-	-	-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	10.5	-	-	-
기타	0.1	0.8	0.6	0.5	0.5
모름/무응답	3.9	6.0	4.0	5.2	4.9

주1) 제18대 대선 1차의 경우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라고 보기 제시

주2) 제18대 대선 1차의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보기 제시